

# 개발교육논의에 있어서 젠더 관점의 필요성

## -일본의 관광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미 (세종대학교 여성학 강사)

제I장

제II장

논  
단

제III장

제IV장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개발교육 논의 및 현황
  - 1. 개발교육의 정의
  - 2. 개발교육의 전개 및 현황
- III. 일본의 관광개발 정책
  - 1. 일본 운수성의 해외여행정책
  - 2. 기업과 정부의 관광개발
- IV. 일본의 관광개발과 여성
  - 1. 일본인들의 아시아지역 성매매관광
  - 2. 관광개발과 여성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언제부터인가 글로벌, 전지구화, 세계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자본의 흐름, 인구의 이동 등이 마치 국가 간 국경이 없는 듯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 수가 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침을 격긴 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다시 해마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나간 사람이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표 1〉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관광 출국자 수

(단위: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 출국자 수	증 감 륜
2007년	13,324,977	14.8
2008년	11,996,094	-10.0
2009년	9,494,094	-20.9
2010년	12,488,364	31.5
2011년	12,693,733	1.6
2012년	13,736,976	8.2
2013년	14,846,485	8.1

출처: 관광지식정보 시스템(www.tour.go.kr)의 “2013.12. 관광동향분석” 자료 재구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나라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본을 비롯한 중국, 태국, 필리핀, 터키,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많이 찾고 있다.<sup>1)</sup>

하지만 이러한 여행 소식과 함께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여행지에서의 불미스러운 행동들이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행지인 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매매 관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2007년 이후 계속해서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US Department of State, 2012:2010~211),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이 2012년 발표한 세계 인신 매매 보고서 역시 한국 남성을 ‘동남아 지역 특히 캄보디아·태국·베트남 지역에서의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이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는 점(UNDOC, 2012:72) 등, 국제적으로도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는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관광은 단순히 취미나 여가의 차원이 아니라 남반구와 북반구의 문제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행은 북반구 선진국 사람들의 남반구인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이며, 그러한 이동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남반구의 사람들과 자연, 문화 등을 착취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인 북반구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중요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력을 기울였던 개발도상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도움을 받아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ODA의 관계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의미가 깊다.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된 케이스로 ODA의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6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받으며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ODA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 2012년 1~10월 사이 목적지별 출국자를 보면 최대 관광지인 중국이 소폭(-2.8%) 감소한 반면 일본은 엔저 영향으로 26.6%나 늘어났다. 특히 대만이 25.8% 증가해 새로운 여행지로 급부상했으며, 태국(12.4%) 필리핀(22.3%), 터키(16.8%) 등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는 짧다. 그런 만큼 다른 수원국들에 대해 원조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긴 공여국의 역사를 지닌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그들이 범한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서, 실질적으로 자본이나 기술적인 협력과 원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원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개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원국과 공여국의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경험하였기에, 같은 상황일지라도 수원국이었을 때의 기억을 토대로, 공여국으로서 같은 일을 다른 수원국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하면서 원조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찰과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의식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수원국들의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는 공여국 국민들로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시민의식과 그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행해지는 개발교육은 내용, 대상 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는 공여국의 역사가 짧은 만큼, 개발교육의 역사 또한 짧아 시작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의 개발교육의 향방은 앞으로의 글로벌 시민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여국이라는 입장의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개발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의를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개발교육의 전개 흐름과 교육현황을 살핀 후, 개발교육의 내용 속에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그 중 한 사례로 일본의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북반구의 관광 개발과 북반구 시민들의 남반구로의 관광이 남반구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그들의 여행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통해 거꾸로 현재의 개발교육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특히 수원국일 당시 기생관광이라는 형태로 공여국이었던 일본의 관광객들을 맞이해야만 했던 우리나라가, 공여국의 입장이 된 지금 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매매관광이라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하여 개발교육에 젠더의 관점이 부재함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II. 개발교육 논의 및 현황

### 1. 개발교육의 정의

개발교육은 선진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들의 개발에 참여할 때에 그 국가들의 빈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원조를 이끌어 내려는 소극적인 교육에서 모든 부분의 개발 쟁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미나 외, 2010: 168).

제I장

제II장

논  
단

제III장

제IV장

개발교육은 자신이 속한 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교육하는 것인 만큼 세계교육이나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시민들의 시민성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성 교육이란 좁게는 한 사회 안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훈련으로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을 말하고, 넓게는 단순히 정치적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시민으로서의 규범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전숙자, 1996; 45). 개발교육은 이를 실행하는 기관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곤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2> '개발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기관 및 학자	정의
마스트리히트 선언 (Maastricht Declaration: European Strategy Framework for Increasing and Improving Global Education to the Year 2015)	개발교육은 연대, 평등, 통합,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학습과정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개발에서의 우선순위 및 지속가능 인간 개발에 대한 기본 인지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참여와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 빈곤 퇴치 및 소외에 대항하는데 모든 시민들의 적극 참여 촉진과,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및 인권에 기반을 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UN	개발교육은 개발된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 존엄성, 사회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개발의 원인, 개발 내용,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새로운 세계 경제 및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월드뱅크의 DEP (The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web	개발교육은 국가와 지역 및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사회, 경제, 환경적 이슈를 가르치는 것이다.
Tilbury	개발교육은 UN과 NGO들을 중심으로 후진국의 사회·경제적인 빈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선진국의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중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개발교육은 제3세계의 기근과 빈곤 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후진국에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utt	개발교육은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의 한 형태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로컬과 글로벌 스케일에 이르는 개발 쟁점들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정의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교육은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의 발달을 강조한다.
DEA	개발교육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세계의 다른 사람들의 삶 사이의 연결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람들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태도, 가치를 발전시키며, 권력과 자원이 더 공정하게 분배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살기 위한 작업이다.(DEA, 2004)

출처: 마스트리히트 선언, UN, 월드뱅크 DEPweb의 정의는 이태주(2010:299-300)의 내용을, Tilbury, Butt, DEA의 정의는 고미나(2010:157)의 내용을 재정리함.

위와 같이 개발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정의 속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은 도움을 주는 입장이든 도움을 받는 입장이든 같은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하에 서로 호혜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계속 확대되고 있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소득 격차를 가져오는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반구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핵심을 빼고, 현지의 비참함과 원조의 필요성·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개발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교육이 된다면 이는 남반구 사람들이 불쌍한 원조의 대상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 2. 개발교육의 전개 및 현황

개발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UN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발교육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 북유럽 선진국들의 국제봉사단체에 의해서였다. 이 단체들은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을 원조하면서, 자국민들에게 후진국에 대한 공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 시기에 NGO들은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보다는 빈곤과 그 대처법만을 강조하였다.

1960년대는 UN이 세계식량기구(FAO)를 설립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빈곤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자신들의 삶의 관련성은 그다지 인식하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 NGO들은 후진국의 문제는 선진국들과 관계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개발교육이 공교육 형태로 학교에 소개되기도 했다.

1980년대가 되자, 개발교육은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성장, 경제개발과 생태계의 관련성,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고미나 외, 2010: 156-158).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를 기점으로 개발교육과 환경교육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되었다. 그러면서 개발협력이슈 및 MDGs와 관련한 대국민인지제고의 한 방편으로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이태주, 2010:296)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발교육도 그 범위와 관심 영역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결국 세계화의 원인과 과정, 세계시민으로서의 상호간의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빈곤, 교육, HIV/AIDS, 성평등, 환경, MDGs와 같은 국제개발 이슈와 이에(이태주 외, 2010:301)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켜 나갔다. 하지만 빈곤이나 가부장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제I장

제II장

논  
단

제III장

제IV장

원인으로 발생하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문제,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한 젠더관점의 개발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이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개발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구촌의 빈곤문제, 개발도상국의 발전문제, 아동노동문제, 인권 문제, 여성노동문제, 지속 가능 개발 등 국제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들과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세계학습(Global learning),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세계교육(Global education),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개발교육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복잡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집합적으로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협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기 때문에(이태주, 2010: 294-295), 개발교육의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좀 더 신중하게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의 범위, 교육 기관 등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원국과 공여국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살려 개발교육 내용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대상도 전 국민이 진정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교육의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논의 및 연구<sup>2)</sup>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담고 있는 개발 교육 내용이 전 지구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젠더관련 문제, 즉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I. 일본의 관광개발 정책

이 장은 우리나라보다 공여국의 역사가 긴 일본의 관광개발이 아시아 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가부장제와 일본 여성들에 대한 일본 남성들의 섹슈얼리티 의식이 아시아 각 지역의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리고 올바른 젠더관계에 대한 인식이 시민의식 속에 절실함을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교육의 내용을 재고하고자 한다.

2) 이태주 외(2010), 고미나 외(2010) 등은 개발교육을 공교육의 지리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 1. 일본 운수성의 해외여행정책

일본의 운수성은 국민들을 해외여행으로 내보내기 위해, 1987년 “해외여행 천만 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운수성이 일본인 해외여행자 1000만 명 시대를 겨냥하고자 내놓은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해외여행자 수가 1985년에 500만 명이었으므로,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천만 명이라는 목표는 1991년이나 1992년쯤 달성 될 것으로 운수성은 예측했지만, 목표보다 2년 빠른 1990년에 해외로 여행간 일본인이 천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운수성은 그 당시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해외로 여행가는 일본국민들이 적다고 보았다. 1987년 당시, 해외여행을 나가는 인구가 일본의 경우 국민의 4%였는데 비해 영국은 39%였다. 서독(독일통일 전) 34%, 프랑스 16%, 미국 12%, 오스트리아 10%로, 선진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유럽의 경우 일본과 다르게 해외여행이라고는 하지만, 한 시간만 가면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라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일본과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비교적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앞으로는 해외여행객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 측과 기업이 해외에서 관광개발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운수성은 왜 자국민을 해외로 여행보내기위해 노력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경우, 여행 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돈과, 일본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는 돈의 차이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밖에서 사용하는 돈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가 돈을 사용하여 흑자를 줄이고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압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 또한 역시 외압의 문제인데, 노동시간에 대해서이다. 외국에서 일본인들의 장시간 노동, 즉 일본인들은 너무 일만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역시 무역마찰 대책 중의 하나였다.<sup>3)</sup> 일본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노동만 하면서 경제적인 힘만 기른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국민들을 쉬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촉진한 것이다.

다음은 해외여행 대중화이다. 패키지여행이나 관광 방법 또한 해외로 쉽게 나갈 수 있게 된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항공회사, 여행사들이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이른바 패키지여행을 기획하고, 단체로 모아서 내보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집회나 회의 특히 국제회의를 해외에서 유치하여 몇 백 명 혹은 몇 천 명 규모를 모으려고 각 국 정부와 함께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런 다채로운 형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3) 1993년 당시, 일본인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00시간 이상이었다. 서구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는 1,600 시간이나 1,700시간이었고, 미국도 1,800시간으로 일본인들의 노동시간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보내려는 일본 운수성 측의 정책과, 그런 일본인 손님을 받아들이려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라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해외여행자들은 계속 늘어갔다.<sup>4)</sup>(松井やより, 1994: 145-149)

## 2. 기업과 정부의 관광개발

운수성의 해외여행 정책에 따라, 민간 기업과 정부는 일본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관광 개발은 ODA로서 개발대상국의 경제 원조라는 측면을 띠고 있는 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민들의 여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은 개발대상국에서 주로 관광관련, 호텔, 리조트 등의 투자를 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사들이거나 호텔을 건설·매수했다. 선진국과 개발대상국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였는데, 하와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선진국에는 호텔을 많이 진출시켰던 것에 비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부동산과 토지를 사는 등 투자 목적의 부동산 개발형 투자가 많았다. 이는 땅값 상승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기업들은 앞 다투어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골프장을 건설했다.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 각국에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분주했다.(松井やより, 1994: 150-151)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개발대상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이거나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들이었다. 골프장 건설로 발생하는 선주민들의 고민이나, 불이익,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본인들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관광 개발은 어떠하였을까. 선진국들을 상대로 한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해외여행 정책을 펼친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 지역에서 관광 개발에 협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관광분야에서 어떠한 ODA 경제 협력을 수행하거나 계획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운수성은 국제협력의 날인 1989년 10월 6일에 ‘관광과 국제협력’이라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요컨대 일본인을 해외여행에 좀 더 내보내기 위하여, 대상국들의 관광 설비를 여러 면에서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일본의 ODA도 사용한다는 발상이었다.

그 방법으로 우선 JICA는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1975년 보로부두르(Borobudur) 관광계획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불교 유적인 보로부두르를 유네스코가 복원하게 되었는데, JICA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개발 마스터플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유적 주위에 공원을 만드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해외경제협력기금)의 28억 엔의 차관으로, 일본의 건설회사가 1983년에 이 공원을 완성시켰다. 그 때문에 다섯 개 마을의

4) 1991년에 일본의 해외여행객수는 1,200만 명에 달했다.



400여 세대의 농민이 강제퇴거 당하여, 당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관광개발이 착취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 일본의 ODA는 가난한 선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JICA는 그 후 1978년에 수마트라 도버호수 주변, 1979년의 보로부두르 근처의 프람바난이라는 힌두교 유적 사전 조사, 1980년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국립공원 계획 조사, 그리고 1988년에는 말레이시아지역 종합개발과, 태국 남부의 지역개발계획의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태국 남부는 푸켓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말한다.

그렇게 JICA는 여러 지역에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만들기과 지역 개발의 사전 조사를 한 후, OECF가 차관을 대는 구조로 관광 ODA를 해 나간 것이다. (松井やより, 1994: 164-166)

1980년대 이후에는 호텔을 짓기보다는 호텔 등의 관광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반 설비, 인프라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즉 도로나 공항을 만들거나 상하수도를 만드는 등 간접적인 관광개발로 원조를 바꾼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OECF는 인도의 불교유적 순례관광 네트워크, 즉 불교유적 관광을 위한 도로 등의 기반 설비에 92억 엔, 태국의 관광개발과 기반정비에 60여억 엔의 차관을 뒀다. 역시 이것들은 관광지로 가기 위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을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하여, 관광지를 위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라기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냉방버스나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관광도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도로를 만드는데 ODA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V. 일본의 관광개발과 여성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젠더관계를 보여주는 성별 정치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가 관광과 연계되어, 또는 관광을 빙자하여 행해지는 경우를 ‘성매매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시아 지역의 성매매의 기원은 그 지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이지만, 비교적 부유한 관광객과 현지 농촌이나 빈민지역의 끔찍한 빈곤 사이에 있는 경제적 불균형이 제3세계의 성매매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번호표로 인식되는 현실에는 ‘절대적인 비인간화’가 내재되어 있다. (론 오그라디, 1985:56-58) 성매매관광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처럼 가난한 사회의 여성들은 그들의 여성성을 수입의 일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빈곤과 외화 수입을 필미로 한 국가 정책으로서 정부의 묵시적 · 명시적 방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추진정책을 위해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관광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그 곳 선주민들에게 토지문제, 문화문제, 그리고 성매매라는 공통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토지문제와 성매매문제 등은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빈곤한

제I장

제II장

논  
단

제III장

제IV장

위치에 더욱 많이 포진되어 있는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은 가부장제라는 문화와 결부되어 더욱 고단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이해가 관광 개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며, 그러한 이해가 앞으로의 관광 개발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일본의 가부장제와 성적으로 종속당하는 일본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이 국가의 관광개발 정책과 만나 아시아 각지로의 성매매관광으로 나타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젠더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시행된 관광개발이 선주민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본인들의 아시아지역 성매매관광

일본의 개발교육은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서구에 비하면 여전히 역사가 미천하다. 남북격차·환경·빈곤 등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1982년 발족한 NGO 단체인 ‘개발교육협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 Resource Center, 이하 DEAR라고 함)’ 등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DEAR의 개발교육 내용에서도 일본의 개발 교육에서 젠더의 관점은 보이지 않았다.

개발교육 속에 젠더관점이 없는 일본의 관광개발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즉 여성이나 아이들, 혹은 선주민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피해가 각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개발교육, 세계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일본 남성들이었으며, 특히 젠더와 관련한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에 당시의 일본국민들 특히 남성들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여행지인 개발도상국의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행을 성매매관광(일본에서는 ‘매춘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혹은 섹스 투어라고 하였다.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정책 중의 하나인 여행의 대중화 정책으로, 패키지 여행·단체 관광이 성행하여, 성매매관광 또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많은 일본 남성들을 불러들였다. 개발교육, 특히 젠더관점이 없는 개발교육의 부재와, 일본 내의 가부장제, 그리고 여성을 남성들의 성적인 종속물로 여기는 일본 남성들의 여성관이 외국에 나가서도 성매매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우선 일본에서 섹스투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처음 몰려간 곳은 대만이었다. 타이베이(台北)근처의 베이더우(北投)온천은 1960년대 후반 정도부터 많은 일본 남성들의 성매매관광의 온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72년 일본과 중국과의 국교 회복으로, 대만과 일본과의 항공로가 일시 중단되자, 대만으로 가던 관광객들이 이번에는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에서의 성매매관광은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대로, 자본이 없는 나라, 기술이 없는 나라였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돈을 빌려 공장을 세우고 길을 내다보니 외채는 끝없이 늘어만 갔다. 원자재는 물론이고 공구하나까지도 수입해서 쓰다 보니 무역적자 또한 날로 커졌다.

한국정부는 부족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관광산업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기술과 자본의 부족에서 오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메우려는 의도였다. 그것이 바로 기생관광이었다. 주 고객이 일본인이었지만, 기생관광은 예상대로 부족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사실상 기생관광은 한국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으로 197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700억 원에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은 기지촌 술집에 면세혜택을 주고 관광기생에게는 통행금지와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까지 발급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겠다.(최미술, 2010:104)

1973년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성매매관광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나라를 일본 남성들의 유곽으로 삼지 마라'라는 데모를 했을 정도로 기생관광차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남성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 후, 일본 남성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필리핀이다. 필리핀 관광이 눈부신 발전을 시작한 것은 1973년쯤부터이다. 그 때 마르코스 정권이 관광리조트를 만들어, 외국인을 많이 불러들여 외화를 벌려는 관광진흥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의 관광객 숫자는 해마다 26%씩 증가했다. 1973년에는 관광 수입이 7,700만 달러였던 것이, 1980년에는 3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치로 보면 관광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적인 금융기관 혹은 항공회사, 국제적인 호텔체인, 다국적 기업, 외국 은행 등에게 빌린 돈으로 계속해서 5성급 호텔을 지었기 때문에 갚아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관광형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이 되자 마닐라는 일본 남성들의 성매매관광의 본거지가 되었다.(松井やより, 1994:83)

그리고 또 한 곳으로, 일본인들이 성매매 관광지로서 대거 가게 된 곳이 태국이다. 방콕의 팻퐁(Phat Pong)이라는 환락가는 성매매 관광의 중심지였다. 태국은 1987년은 '관광의 해', 1988년은 '핸드 크래프트의 해'라고 해서, 매년 약 20%씩 관광객이 늘어났다. 1991년에는 해외관광객이 500만 명이나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매매도 비대해져,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의 성매매도 처음에는 대도시 방콕이 중심이었는데, 점점 지방에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그곳으로 성매매의 본거지가 옮겨갔다.(松井やより, 1994:95)

이렇듯 일본의 남성들은 일본 정부가 ODA로 아시아 각지에 만들어 놓은 관광인프라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여행을 즐기듯,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시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

제I장

제II장

논  
단

제III장

제IV장

## 2. 관광개발과 여성

1980년대 후반이 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관광이 급성장 한 이유는 Ⅲ장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의 해외여행정책의 의도 외에 미국의 달러와도 관련이 있다.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받아들이는 아시아 각국의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일차 상품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자 자연스럽게 외화수입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은 관광정책을 촉진하여 외화수입의 감소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관광 개발을 생각할 때는 개발하는 측과 개발당하는 측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을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국제 협력의 입장일 수도 있고, 자국민들의 여가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당하는 입장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과라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관광개발과 관광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문제이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주로 북반구인 선진국 사람들이 남반구인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행을 가는 입장보다 받아들이는 쪽의 사람들이 불편함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특히 개발교육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은 여성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발의 흐름 속에서 토지를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골프장과 호텔 건설 및 관광 시설의 개발을 위해 선주민들은 토지를 점점 잃어간다. 토지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그동안의 생계수단이었던 농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져 선주민들은 더욱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이반마을의 사례를 보면 개발로 인해 토지를 잃는다는 것이 선주민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 사라위크주의 선주민족인 이반마을에서는 바탄아이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시켰다. 더구나 보상공은 세대주인 남성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든 남성들은 오토바이를 사거나 ‘베자라이’(남성들이 목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나,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것)’를 위해 사용해버리거나, 혹은 투계(鬪鷄)에 쏟아 부었다. 결국 여성들의 손에는 보상공이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공을 다 쓴 남성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돈을 벌러 떠나고, 여성들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松井やより, 2005:146)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던 선주민들은 돈에 대한 관리 및 경제적인 관념이 개발을 하는 입장의 국가들보다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국가의 개념으로 지급한 토지에 대한 보상공은

도박이나 그동안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던 토지 대신의 생계수단을 얻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 전부 손실해버린다. 그에 대한 대가로 남성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나고, 그 동안의 가족의 틀도 깨어지게 된다. 남아있던 여성들은 곤궁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양성의 관계에도 균열이 초래된다는 것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때까지 이반 사회는 여성들도 마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남녀가 평등했다. 마을 일은 공동주택에 있는 공유부분인 넓은 베란다에 남녀모두가 모여서 회의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강제 이주를 앞두고는, 개발위원회에는 가족을 대표하여 남자만이 나가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여성의 정치참여 형태가 무너져갔다. 보상금은 여성의 손에 건네지지 않았고, 정책 결정에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그 결과로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松井やより, 2005:146)

보저랩은 서구 국가들이 남성 중심으로 아프리카 식민지 경영을 함으로써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제적인 역량과 권한을 축소하거나 무시하여 아프리카 여성들의 반발을 산 것을 비판한 바 있다. (Boserup, 1970:53-64) 이반마을 또한 가부장제 사회인 일본이 이반마을에 대한 젠더관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보상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그 지역에 존재해있던 여성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부유하진 않지만 평화로웠던 마을에 호텔이 들어서고 관공시설이 들어서면서 토지를 빼앗긴 지역민들은 시간이 흘러 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호화로운 호텔이 들어서지만, 선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원하는 호화로운 호텔을 세우기 위해 그 자재가 그 지역의 토산품이나 생산품이 아닌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관광지에서 올린 이익을 결국 외부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개발이라는 것이 선주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딸들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개발로 야기된 빈곤문제로 팔려가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의 여성성을 또 개발을 주도한 국가의 남성들이 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국 사람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문제, 젠더문제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공적 원조를 받는 수원국 중에는 공여국 보다 여성권한 척도가 높거나, 성차별 정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원조의 과정에서 공여국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관념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김경애, 2012:25) 수원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 특히 수원국에 적용되는 원조정책과 사업내용은 공여국의 의식이나 정책 수준이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나가며

국제관광개발<sup>5)</sup>은 “국제 관광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제관광의 발전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동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관광개발은 국가 간 양자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실익을 추구하는 호혜성 국제관광개발과 한쪽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일방 국가가 혜택을 받는 수혜성 국제관광 개발로 나뉘질 수 있는데, ODA의 경우 후자인 수혜성 국제관광 개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 간 상호 비자완화 조치라든가 UNWTO총회와 같은 국제관광 개발은 국가 간의 관광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하고, 이를 위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관련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한 호혜성 국제관광개발이지만, 국제관광 개발에서의 ODA는 관광 부문에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신용석, 2011:21-22)

하지만, 일본과 아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ODA에 의한 관광 개발이 수혜국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는 있으나, 그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들, 특히 여성이나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에 대한 인식과 국민 차원에서의 개발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수원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세계시민에 걸맞는 개발교육의 중요성이 명백해지고, 특히 그릇된 시민의식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성적으로 물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일본의 성매매관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개발교육에 있어서 젠더관점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지금까지 개발교육에서 다루고 있었던 빈곤의 문제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곤의 구조 속에서 더욱 사회적인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ODA전체에서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sup>6)</sup>, 최근 관광 트렌드가 생태 관광 및 지속 가능한 추세로 변화되면서 ODA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 그

5) 신용석(2011)은 ‘국제관광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의 용어 통일을 위해 본문에서는 ‘국제관광개발’이라는 용어로 가용함.

6) ODA 전체 규모와 관광섹터의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광섹터	19	26.84	121.52	417.85	51.94	59.09	134.13
ODA전체	70,199.51	74,859.56	97,141.12	99,136.33	93,820.37	116,320.21	104,801.27
관광섹터/ ODA전체(%)	0.03	0.04	0.13	0.42	0.06	0.05	0.13

출처: OECD ODA 통계에서 발체정리내용을 신용석(2011), “국제관광협력과 ODA”에서 재인용



이유는 수원국인 개도국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빈곤 퇴치라는 ODA의 목표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DA 전체에서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규모적인 면이나 트렌드는 국제적인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분야 ODA의 경우, 수원국 지역 주민들의 관광역량 개발이나 관광계획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림수산물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농촌생태관광시범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양자간 협력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UNWTO-STEP재단과 함께 개도국의 관광역량 진흥을 위하여 관광인력 연수 사업 등을 진행 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하여 유네스코(유네스코방콕)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가 있다. 이외에도 국내 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개도국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신용석, 2011:22-23) 공여국의 역사가 짧은 만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ODA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가 수원국이었을 당시 일본 남성들의 기생관광을 허락한 것을 비판하였으면서도, 공여국이 된 현재 아시아 지역 성매매관광이라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성찰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성장중심주의적 개발의식이 아닌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수원국들의 개개인의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연과 환경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제I장

제II장

논  
단

제III장

제IV장

## 〈참고문헌〉

- 고미나, 조철기(2010), “영국에서 글로벌 학습을 위한 개발교육의 지원과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18(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국무총리실(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 김경애(2012), “우리나라 공적 개발원조(ODA)와 젠더”, 『젠더연구』제 17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론 오그라디(1985),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연구원윤김, 『제 3세계의 관광공해』, 민중사
- 박혜진(2013),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관광과 법적 대응 방안 모색”, 『고려법학』제69호 2013년 6월,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 수출입은행(2012),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수출입은행
- 신용석(2011), “국제관광협력과 ODA”, 『한국관광정책 2011, Summer』No. 44
- 이태주 외(2010), “지리교육에서 시민의식교육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연구”, 『대한지리학회지』제 45권 제 2호, 대한지리학회
- 임은미(2013), “제4장: 개발협력과 젠더 - DAC 성평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세계정치』19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전숙자(1996), “생활교육과 시민교육”, 『사회와 교육』2023집, 한국사회교육학회
- 최미술(2010), “일제의 잔재 기생관광”, 『한중일비교문화공모전 수상집 2010』,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2013), “2013. 12. 관광동향분석”, 관광지식정보 시스템(www.tour.go.kr)
- Boserup, Ester(1970),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St.Martins Press,
- US Department of State(TIP)(201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2012),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 松井やより(1993), 『アジアの観光開発と日本』, 新幹社
- \_\_\_\_\_ (2005), 『愛と怒り 闘う勇氣』, 岩波書店

###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depweb/>

<http://www.dear.or.jp/org/index.html> 일본 개발교육협회

제 I 장

제 II 장

논  
단

제 III 장

제 IV 장